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 성경과 함께하는 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요한1,14)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05년 교구설정 40주년을 지낸 우리교구는,
2006년 ‘생명을 지키는 가정의 해’, 2007년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해’, 2008년
‘아름다운 환경과 우리’의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에는 ‘봉사하는 교회’라는
사목목표를 가지고 성기는 교회의 본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고 실천해
왔습니다. 우리 각자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각 가정에서, 본당에서, 자신
이 속한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안에
서 성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되짚어 보니
다. 봉사하는 삶, 성기는 삶은 한 해의 삶의
자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간직해야 할 삶의 지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림절과 함께 새로운 한 해 2010년을 시작
하며, 올해의 사목목표를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 설정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놀랍고도 은혜로운 사실을 이야
기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
다.”(요한 1,14)

흔히 ‘하느님께서는 저 높은 곳, 그야말로
특별한 곳에 머무르시며, 구경하며 비난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을 내리며 심판하신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느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시어, 세상이 외면하던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과도 함께 웃고, 함께 우셨고,

심지어 당신을 외면하며 돌 던지던 사람들 가운
데에도 함께 하시며,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에서 ‘더불어’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참으
로 별난 하느님’으로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과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제일 근거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책장
의 한 구석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는 성경이 우리 책상의 가운데에 펼쳐져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로 모시어 함께 더불
어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말씀은 선포될
수 있는 법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교회
의 근본 사명은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삶으
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교구장으로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뇌리에 새겨지
도록 하십시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히
브 4,12)

그 누구보다도 말씀과 더불어 살았던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읽은 말씀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묵상은 머리에 새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창세
기에서부터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묵
상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카인의 이야기
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성경 묵상은 치유 받은 수많
은 병자의 모습 안에서, 죄 많은 여인의 모습
안에서, 세리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의 모습

안에서 나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묵상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십시오.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들은 늘 하느님
의 말씀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작은 모임에서도 말씀과 더불어 이루어진 우리
의 삶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나눔 가운
데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셨음
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배움의 기회 를 자주 가지십시오.

배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배움은 말
씀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보람 있게 하는 힘입니다. 모든 교우들은 자신
의 주위에 펼쳐지는 배움의 기회들에 적극 참여
하십시오. 더불어 사목자들에게 강조합니다. 교
구와 지구, 그리고 각 본당에서 배움의 장을 지
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레고리오 성인은 성경을 “전능하신 하느님께
서 당신의 피조물에게 써 보낸 한 장의 편지”
라고 하셨습니다. 성인의 말씀대로 성경이라는
편지를 쓰신 분은 하느님이고, 그 편지의 수신
인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
람에게 써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제 우리
는 그 편지에 답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으로 사랑 가득한 답장을 써 보내는 것이 우
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
렇게 되어갈 때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
교구설정 40주년을 지낸지가 엿그제 같은데 어
느덧 50주년을 향해 절반의 걸음을 옮겨가고 있
습니다. 교구설정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2015
년이 교구의 참다운 축제의 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우리의 발걸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이제까지 교구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들이 신앙 안에서 일치하여 하느님 나라를 선포

하고 또 삶으로 그 기쁨을 드러내왔던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올 한 해, 말씀 안에
서 더욱 힘을 받아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큰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2009년 11월 29일 대림 첫 주일에
원주 교구장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
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
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쁨소식
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09년 11월 29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05.00
교 무 금 : \$
감 사 금 : \$ 10.00 223(10)
성전건립 : \$
성모님동산 (누계):금주\$5 (\$5290.00)
합 계 : \$ 715.00

본 당 소 식

◎ 2010년 매일미사책 구입 안내

- ▶비용 ; 1년치 \$48.00
 - ▶신청 ; 박재영 선교부장
 - ▶마감 ; 12월 13일
- 2009년 12월분 매일미사책을 \$5.00에 판매합니다.

◎ 대림절 판공성사 안내

12월 13일(대림 3주일)-조원행 안드레아 신부님
12월 20일(대림 4주일)-고원일 안드레아 신부님
 # 공히, 미사 30분 전과 미사 후에 있습니다.

◎ 음악회 결산

성안토니다니엘 성당에서 약 \$4800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진심어린 감사를 보내왔습니다.

◎ 성가대에서 알려드립니다.

장크리스티나 자매님의 개인 사정으로 성가대 반주를 맡아주실 교우를 찾습니다. (0 명)

- ▶문의 : 성가대 단장 / 지휘자

◎ 바뇨의 성모 기도회 모임 안내

- ▶일시 : 12월 18일 (금) 오후 7시
- ▶장소 : 교육관

◎ 성모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순대 판매합니다. 예약은 이 은희 이베타 자매에게 해주세요 (\$8.50/개)

◎ 본당 홈페이지 오픈

주소 : www.kwpaul.com

▷ 홈페이지에 대해 개선할 사항은 한택중 형제께 말씀해 주십시오. ☎519 279 4005 교환 1번

◎ 12월 안내 담당은 사목회의입니다.

◎ 각 구역장은 교우주소록양식 정정/추가하여 사목 총무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회개

사람들 중에는 실패를 한 다음에 마냥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 신앙인은 실패 후에 낙담을 하지만, 신앙인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신앙인에게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희망적이고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도록 합시다. 진정한 회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성찰(省察)입니다. 진정한 성찰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 정신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대림절에는 순간 기쁨을 주는 가짜 주(酒)님을 멀리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는 주(主)님을 맞이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대림절 기간 동안 기도와 묵상, 희생과 보속을 통한 기다림이 간절할수록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은 더욱 클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허근 바르톨로메오 신부

성모님은 신앙과 순종의 응답을 통해 모든 신앙인들에게 모범이 되신다. 그분이 구세주를 잉태하는 순간에 보이신 신앙과 순종의 응답은 일생의 온갖 시련 속에서 (루가 2,35.49-50; 8,19-21; 11,27-28; 요한 2,4)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요한 19,25-27)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이렇게 시종일관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사신 성모님은 지상생활을 마치신 뒤 하느님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다른 성인들과 함께 하느님께 전구해 주신다. 그런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분처럼 하느님의 뜻에 기꺼이 신앙과 순종의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09-49호

2009. 12. 6.

대림 제 2 주일 (인권주일)

해설 신계연 차주 해설 박명옥

성 가

임 당 (95) 별들을 지어내신 주
 봉 헌 (216) 정성어린 우리 제물
 성 체 (182) 신묘하신 이 영적
 퇴 장 (92) 구세주 내 천주여

화 답 송 ◎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독 서	
12월 6일	신상우 신계연
12월 13일	최우석 최연옥

봉 헌	
12월 6일	김현태 김진선
12월 13일	신상우 신계연

복 사	
12월 6일	구하람 김근영
12월 13일	구한힘 이수민

친 교	
12월 6일	성모회와 워털루 4구역
12월 13일	성모회와 브랜포드 구역